

한일 관계 동향(2020.12.11.~2020.12.18)

1. 한국의 CPTPP 참여 관련

- 일본 정부는 한국의 CPTPP 참가 검토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 스가(菅) 일본 총리는 12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CPTPP 참여와 관련, “참여한 11개국의 동의가 없다면 간단하게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으며, 새로운 가입에 대해서는 “큰 허들(장벽)이 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¹⁾
 - 모테기(茂木) 외무장관은 12월 15일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가 가입에 관심을 표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CPTPP는 규범의 수준이 높아 해당 국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²⁾
- 또한 모테기 장관은 “일본은 내년 CPTPP 의장국으로서 신규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의 동향, 준비 여부 등을 주시하며 전략적 관점으로 CPTPP의 착실한 실행 및 외연 확대에 힘쓰겠다”는 의향을 표명

2. 일본제철 즉시항고(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12월 9일 효력 발효)에 즉시항고 하였지만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³⁾
- 대구지방법원의 포항지부는 12월 11일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즉시항고)과 관련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기각)
- 일본제철은 압류 결정이 내려진 자사의 한국 자산과 관련하여, 3건의 결정 중 2건에 대해 12월 10일 즉시항고한 바 있음.

1) 「中韓TPP参加「簡単ではない」、首相。」, 「日本経済新聞」, (2020. 12. 12) 및 「中韓TPP参加 否定的 首相「大きなハードルある」」, 「静岡新聞」, (2020. 12. 12).
2) 外務省(2020. 12. 15), 「茂木外務大臣会見記録」,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24_000039.html#topic3 (검색일: 2020. 12. 16).
3) 「元徴用工問題：元徴用工訴訟 日本製鉄の不服、即時抗告認めず 韓国地裁支部」, 「毎日新聞」, (2020. 12. 12) 및 「韓国徴用工訴訟、日本製鉄の即時抗告認めず」, 「産経新聞」, (2020. 12. 12).